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31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4. 29(금) 14:01 ~ 18:15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제33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방역지침 완화와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인해 오늘 회의는 저와 위원님들, 사무처장직무대행, 본부장, 기획조정 부장이 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과 사무처 안전 보고자 모두 온라인 참여를 폭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안전보고자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영상으로 안전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위원회 노동조합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롭게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님과 조용주 부위원장님이 당선이 되어서 집행부를 구성하여 4월 17일 임기에 들어가셔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노동조합은 우리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23대 집행부입니다.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님은 현재 위원회 회의실에 참석해 계시고 부위원장님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노동조합위원장님께서 직접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상호간에 잠시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위원님들께는 제가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4월 18일부로 새롭게 3년간 저희 위원회 노동조합을 이끌 예술위원회 김효은 노조위원장입니다. 저희 조용주 부위원장님은 비대면으로 참석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조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관해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무처의 의지 등을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7기 위원님들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요. 저도 출마하게 된 가장 큰 동력이 된 계기는 정권교체였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경영진이라는 하지만 저희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당선과 임기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술위원회는 가장 창의적인 공공기관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의사결정의 중심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쁜 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뤄야 할 안전이 제법 많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료에 보시다시피 국회지정사업 보고 3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결안을 빨리 마무리 하고 국회지정사업 보고를 차례로 받게됩니다. 혹시 의결사항이 길어질 경우 국회지정사업 보고를 위해 사업보고를 하실 사업담당 주체들이 시간을 맞춰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서 시간이 되면 국회지정사업 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의결사항으로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4개의 보고사항을 차례로 접수해야 할 긴 회의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김윤희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직원 14인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중에서 전고필 위원님과 이진희 위원님을 제외한

10인이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前次) 회의결과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제329차 전체회의에서 3건이 상정되어 1건의 수정의결과 2건이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330차 서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1개의 안건 역시 원안의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으로부터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전차(前次) 회의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의결안건은 총 3가지입니다.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유형) 공모 결과,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3차 실연심의 결과보고,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의 건 등 3가지 안건의 의결이 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3개의 의결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44호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 소공연장지원 공모)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2022년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 중에서 민간소공연장지원 유형에 대한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객석수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공연예술단체 또는 공연장을 대상으로 해당 기획사업과 공연사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유형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장르는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0억이고요. 지난 2월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고 3월에 공모접수를 시작해서 4월에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신청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신청건수는 총 160건이고 지원신청액은 78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지원신청 접수현황을 보시면 수도권이 약 53.45% 정도고 지역이 46.55% 정도로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원심의회의를 추진해서 통합심의로 6명의 심의위원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보시는 바와 같고 여성, 지역, 신진에 대한 비율 역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지원심의 결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이 결정이 되었고 지원결정 금액은 10억입니다. 총 160건이 신청해서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단체 3건의 행정결격이 있었고요. 157건이 심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건이 결정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각 장르별 결정비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별 결정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이 61.9%, 비수도권이 38.1%로 지역최소보장제가 적용된 것을 상회하는 규모로 지역이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6인 통합심의로 진행하였는데 당일 문화일반으로 참여한 신 김동균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이 당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불참을 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해당 사업들을 발표하고 이후에 교부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공연예술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요.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의견서 제출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전의견서로 제출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홍태림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지난해에 추경으로 편성되어 20억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인데 올해는 10억으로 추경이 미편성된 사례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심의결과 발표를 할 때 해당 내용을 적시해서 발표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 때 홍태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1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자료 8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셔서 지금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이원재 위원 : 자료는 저희가 다 보고 왔고요. 오늘 안건이 너무 많고 뒤에는 쟁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기도 5월까지라서 큰 이견이 없는 것은 빠르게 의결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특별한 쟁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하고 동의·재청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사항이나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의 의견도 확인해야 하니까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선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시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대가 있으신 경우 말씀을 해주십시오. 반대가 없으므로 직접 위원회 회의실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도 접속이 되어 있는데 박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확인했습니다. 이시백 위원님도 확인을 했고요. 여기 회의실에 있는 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모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고 반대가 없었으므로 안건번호 제 944호 2022년 민간공연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공모)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안건번호 제945호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역시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지난 9월에 의결된 정시공모 내용을 토대로 10월부터 공모접수를 시작해서 7개월에 걸친 긴 심의를 마치고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으로 발표할 공연들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심의 절차를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마쳤고요. 그 이후에 실연심사를 통한 교부결정 이후에 4월 25일까지 총 51건이 실연심의에 참여해서 28건이 심의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본 공연 총 예산은 29억 3,590만 원이 되겠고요. 각 장르별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연극 8억 창작뮤지컬 7억 5,000만 원, 무용 4억, 음악 4억 300만 원, 창작오페라 3억, 전통예술 2억 8,2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르별 최대 지원액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극 2억부터 전통예술 6,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사업별, 장르별 특성을 반영해서 배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심의는 전담심의위원제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요. 심의위원은 각 분야별 7인씩 총 42인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불참하시게 된 3인의 위원님을 빼고 나머지 39인의 위원님께서 모두 참여하셔서 실연심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실연심의는 3월 6일 창작뮤지컬을 시작으로 4월 21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전통예술을 마지막으로 모든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극과 창작뮤지컬은 CJ아지트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은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의 방법은 실연심의와 인터뷰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가 진행되었고요. 25쪽을 보면서 지원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결정현황은 총 28건에 28억 1,400만 원이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각 장르별로 보시면 연극이 6건 선정되었고 창작뮤지컬이 4건, 무용 7건, 음악 3건, 창작오페라 4건, 전통예술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올해 음악창작산실이 처음으로 신설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는 음악 심의위원님께서 보수적으로 심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2억 3,300만 원의 잔여예산이 발생한 부분을 창작오페라로 이관해서 심의를 진행하였고요. 역시 해당 사업에서도 잔여예산이 남은 것을 전통예술 분야까지 이전해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심의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과 예술성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들은 가급적 선정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심의결정이 돼서 잔여예산 1억 2,15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5월 2일에 저희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연예술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의견서를 받기로 하였으나 사전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지금 보고받으신 후에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고 동의를 해 주셔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는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945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결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 번호 제 946호 2022년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4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자산운용계획을 확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운용지침이라는 것을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9일에 자산운용위원회와 3월 28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그리고 단기, 중장기의 배분비율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가 완료된 건에 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산운용계획(안) 내용 중 목표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2022년도에는 2.41%, 단기는 1.54%, 중장기자금은 3.08%입니다. 그리고 허용위험한도는 2021년도 50.84억에서 적립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34.91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제3조의 기금의 개요에 연도말 잔액을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35억 원이 되겠고요. 46쪽의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지침으로 명확히 하는 변화를 담았습니다. 4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7쪽의 목표수익률은 예상물가상승률이나 예상금리 등을 감안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정했을 때 2022년도에 목표수익률은 2.41%가 됩니다. 단기자금은 1.54%고 중장기자금은 3.08%가 되겠습니다. 48쪽은 자금을 운용하면서 허용위험한도를 두고 기금운용역이 정하게 되는데요. 시장위험 허용한도가 48쪽 하단부에서 49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6.87억 원 그리고 중장기자금은 28억 원으로 전체 자금의 손실한도를 34.9억 원으로 설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 유동성 규모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선 유동성 후 수익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75억 원을 단기자금 그리고 876억 원을 중장기자산으로 배분해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50쪽에 있는 자산배분(안)도 단기자금 소계를 보시면 675억 원, 중장기자금 소계가 876억 원으로 1,055억 원의 평잔을 가지고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담당부장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특별히 저희 자산운용팀의 차용진 팀장과 강순규 대리가 직접 출석해 있습니다.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차용진 팀장으로부터 추가설명과 추가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진 자산운용팀장 : 작년에 저희가 1,035억으로 기금이 줄어드는데요. 평잔은 1,71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잔은 1,550억이 되는데요. 올해 말 말잔은 75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2020년도부터 줄어들어서 급기야 올해는 300억 가까이 줄어들게 돼서 다시 1,000억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사업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기자산 비중을 작년 24% 정도에서 올해는 44% 정도로 늘려서 운용을 하게 되겠고요. 연말로 갈수록 기금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자금에서 만기로 회수되는 것들은 단기 위주로 이용하고요. 중장기자금 신규 투자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 31분 이진희 위원 회의참석)

박종관 위원장 : 예. 저희 자산운용팀은 공공기관의 기금운용 주체 중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훌륭한 업적을 쌓은 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산운용지침 개정의 방향이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라고 하는 2개의 전혀 다른 별도의 위원회를,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이 참여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각기 참여하여 서로 전혀 별개의 의견을 내고 서로 감시하도록 편제가 되어 있고요. 자산운용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도 양쪽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오늘 위원회에 최종 의사를 묻는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의견서 제출을 요청드렸습시다만 사전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추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시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모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할까합니다. 혹시 상임감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감사님께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견이 없으시죠?

(「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모두 이견이 없다고 의사를 표현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 의안이 의결되는 동안에 이진희 위원, 전고필 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 주셨습니다.

(14시 33분 전고필 위원 회의참석)

박종관 위원장 : 준비되어 있는 3개의 의결안건 모두를 당초의 예정보다 조금 빨리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보고안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에 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나 회선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회의를 중지하고 회선을 점검한 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 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40페이지입니다.

기존에 논의를 해 주셨던 규정 건에 대해서 보완한 안을 지난 4월 20일에 위원님들께 검토 요청을 드렸고요. 위원님 두 분께서 메일로 검토의견을 주셔서 이 의견을 포함하여 4월 28일 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특별하게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 일부 오탈자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어서 일부 오탈자에 대한 수정만 반영한 형태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첨부된 내용이 제정된 규정(안)인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내용과 큰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규정이 제정되었으니까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나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규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자료 134쪽부터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규정을 제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내서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고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예를 들어 4조 기관장의 책무에 3번을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이 있는데요. 이런 고충 처리 매뉴얼을 만들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듯이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초기부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충상담 창구나 고충상담관은 마련이 되었지만 실제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조직도 초기에 저희가 낸 안에서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상태로 규정이 나와 있고 제정이 된 것이죠. 통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정을 해야 할 시점이 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규정을 제가 못 봤는데요. 지금 134페이지를 보면 위원이 사무처장과 본부장인 것이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그렇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규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사무처장과 본부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박경주 위원 : 이것은 혹시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무처에 있는 사람들로만 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외부전문가들도 최소 2명 정도는 들어가야 규정심의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내부 조직에서 본부장급 이상이 모여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서요. 제가 관련 규정을 보지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 일수도 있지만 만약 관련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 것을 갖고 너무 오랫동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평등 소위나 성희롱·성폭력TF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정작 저희 규정심의위원회 안에서 외부전문가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규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개정을 하거나 새로 만들 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혹시 어디에 어떤 규정에 들어가 있나요?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저희 규정 중에 제규정 관리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것은 저희 내부규정인 것이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내부규정입니다.

박경주 위원 : 내부규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규정 개정을 해야 되고요.

박경주 위원 : 이것은 문체부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일단 논의를 이렇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과 관련된 의견을 먼저 정리하고 박경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규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과 관련한 의견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제가.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의견이 있으시면 정리를 해서 조금 후에 말씀을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게요.

박경주 위원 : 의견을 아직 못 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말씀하세요. 제가 정리한 대로 규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경주 위원 : 이후에 언제 논의를 하자는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규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제규정으로 위원회 안에서 개정이 가능하다면 외부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개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13조의 가해자의 조치에서 제가 문서로 전달을 해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요.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3번에 보시면 “5년 이상 심의위원, 자문위원 후보자격 정지”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분들이 복귀했을 때 다시 심의를 하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들에게 제2, 제3의 피해를 줄 것 같은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3번의 “5년 이상 심의위원, 자문위원 후보자격 정지” 이것을 7년에서 8년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문서로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들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주신 의견을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보기에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13조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경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13조의 기간에서 5년인 것을 질의하신 거죠?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이면 여기에 따른 답변을 먼저 정준화 부장으로부터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서면으로 주셨던 의견이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심의위원과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박경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안은 현재의 규정(안)이 “5년을 제한한다.”라는 게 아니고 “5년 이상의 심의위원, 자문위원 후보자격 정지”입니다. 5년은 최하 기간이고 말씀하신 대로 7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얼마든지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5년이 아닌 7년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일단 답변이 되셨나요?

박경주 위원 : 저는 5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와 7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자면 3번에 한해서만.....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심의위원이나 높은 위치로 돌아와서 다른 피해를 받는 것이니까 7년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의견을 접수토록 하고요. 먼저 정정숙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조사권 부재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의 명확한 파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정의 부족이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 누락에 따른 결여지점에 따른 규정 자체의 효용의 부족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여건 개선에 따른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보다 이 규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셨다가 회의장에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저는 조금 후에 의견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들을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십시오.

홍태림 위원 : 지금 규정(안)에서 원래 원안에 있었던 고충처리위원회가 빠지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은 준비과정에서 제일 검토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은 지원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먼저 지원의 경우에는 접수된 것을 다시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다시 의견을 듣고 들은 의견으로 지원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충상담관선에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의견을 이진희 위원님께서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원의 부분에서도 실효가 떨어지는 것이고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그런 사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재가 필요한 정도의 큰 문제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무선으로 하향시키고 제재에 대한 의사결정은 위원회로 상향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5년 이상”을 “7년 이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죠.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지금 이 규정안을 두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이 13조의 “5년 이상 가해자 조치” 이것이지요?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을 부장님이나 소위의 위원님들

께서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집중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 상황이 지난번 정례회의 때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규정을 제정하자는 것에는 마음이 모아졌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사무처와 소위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의견차이가, 의견차이일수도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율을 한 후에 오늘 의결하자는 것이 지난번 회의결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논의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내용이 좁혀지지 않았거나 함께 성안이 안 되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이후에 서면의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을 이진희 위원님이나 정정숙 위원님 등 소위의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나 다른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이미 제정이 된 것입니다. 제정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고한 것을 저희가 듣고 의견을 저희가 줄 수 있지만 서면의결이나 후속 절차는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당연히 지적과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추가 대응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그러면 규정소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소위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소위에 별도로 의견을 여쭙는 절차는 없었고요. 위원님들께만 여쭙았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동안 소위에서 계속해서 의견을 드렸죠. 우리 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었죠.

박종관 위원장 :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오늘 이렇게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이 만들어진 가장 큰 동력이 그동안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문제 제기 그리고 제안,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바탕으로 나온 결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쉬는 시간에 이석을 했다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의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규정은 통과가 된 것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어제 규정소위원회를 열어서 규정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원재 위원 : 제정날짜가 없어서요. 제정날짜는 어제 날짜로 제정이 된 것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이원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3시부터는 국회지정사업 심의를 위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 분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나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희 위원 : 질문하고 싶은 것은 9조에 피해자 고충 처리 규정과 관련해서 예술위가 사실 확인에 대한 것이나 조사를 직접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조사’라는 말로 언급되지는 않아도 “예술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표현이라도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까지 지난번에 도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9조의 피해자 고충 처리를 보면 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조사업자에게 예술위가 요청하는 것이지 예술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회의 때 합의안을 겨우겨우 도출한 것이, 현재 위원님들이 매우 양보해서 후퇴된 안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예술위가 한다.”라고 완화해서 명시한다면 가능하겠다고 후퇴한 안에 합의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합의라고 해서 대립관계라는 것은 아니고요. 토론 과정에서의 합의니까요. 그런데 지금 9조 1항에 보면 “예술위가 보조사업자에게 사실 확인과 조사를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술위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내용은 지금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본 규정에서 지난번 합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짚어보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부분은 당초(안).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최초로 제시했던 안에도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률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원단체와 협약서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많은 토론 과정에서 인지가 되셨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경우 사업자에게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것이고요. 보완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일 이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고요. 문제가 생긴 단체에 저희가 요청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절차로 진행한다는 부분이 수정(안)에서 보완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 : 부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반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에 따른 절차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완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말뿐인 앙상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설득하려고 하는 오만함을 가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현장예술인이 보면 예술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고충 처리 과정인 것을 모두 눈치를 채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 규정은 한국사회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흥내라도 내니까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안 하더라도 흥내라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술위가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주어가 포함된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왜 실종되었는지? 지난 회의의 합의 내용은 표현을 완화해서라도 예술위가 법에서 ‘조사권’이라고 규정되지 않았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위가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규정안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주어가 예술위인 게 어디에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일반적인 규정의 문법에서 “위원장”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은.

이진희 위원 : 알고 있어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위원장”이라고 주어가 시작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술위가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비어 있는데요. 그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빠진 거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빠졌다.” 핵심이 맞잖아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지금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에 대한 의미부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저는 오늘 의견토론을 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중관 위원장 : 저도 그렇습니다. 의견을 받는 자리니까요.

이진희 위원 : 그러니까 여쭙보잖아요. 그것이 빠진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장이 빠진 거잖아요. ‘조사권’이라고 명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예술위가 말씀하셨고 사무처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법적 책임과 권한이라는 것도 반성폭력운동과 이 사건을 지원했던 수많은 현장과 전문가들이 양평법에 의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권리까지 끌어와서 우리가 조사권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충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술위와 현장은 너무 괴리가 됩니다. 예술위의 성인지 관점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워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는 인식의 차이까지 지난번 회의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토론을 다시 하면 저는 지금 위원과 사무처가 대립하는 각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예술위가 전체적으로 한국사회 전반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과제인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면, 로펌 자문을 말씀하셨는데요. 3월 회의에서 추가로 주셨던 로펌도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로펌입니다. 지금 4개의 법률자문 중에서 2개가 가해자를 변호했던 로펌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실관계를 따지겠습니다.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단순해요. 그래서 ‘조사권’이라고 명시하거나 그 수위로 적는 것이 법적권한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사무처의 어려움을 다 말씀하셔서 다 수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문구를, “보조사업자가 진행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사업자가 대부분 가해자인데요. 그럴 때 예술위가 뭘 할 것이냐? 무조건 문체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의 예술인보호관도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술위가 뭘 할 것이냐?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관계’라는 문구라도요. 그 얘기가 함의를 했던 안이라고요. 그 문장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9조에서 예술위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분명한 의지표현은 꼭 ‘조사권’이라는 용어가 아니더라도 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생략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것은 결국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추가요청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접수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정된 규정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를 묻는 것이고 의견을 묻는 절차잖아요. 그렇게 의견을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이진희 위원님의 의견에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고충 처리의 1번에 우리 예술위원회는 보조사업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체부의 예술인보호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예술위는 요청한 다음에 확인하고 신고를 하는, 스스로의 조사 능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파악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습니다. 예술위는 그냥 중간 입장에서 요청하고 확인하고 신고하는, 정말 매개자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충 처리 내용으로 볼 때요. “예술위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마시고요. 이미 저희가 논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음 규정 심의를 할 때 개정하시거나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저희도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모두 말씀하시고 얘기를 못 하게 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을 조금 더 받고 답변을 하시면 되죠.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 권한만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하는데요.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소통창구를 통해서 다 들어오게 되고 지원교부 신청을 할 때 이미 이러한 부분이 엮여 있어서 단체한테 조사를 하라고 하고요. 조사가 안 이루어지면 2항에 따라서 고충상담관에게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 고충상담관에게 주기 전에 예술위원회가 뭘 하라는 부분이.....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조사를 하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구속요건에 해당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권한을 예술위가 가지고 있으면 하죠. 위법이 아니면요. 계속 되풀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변호사 4인 중에서 4인이 모두 위법이라고 하셨지만 1인은 남성 연대분인데 그분들도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견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3인 모두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말뿐이고 양상하다.”, “오만이다.”, “성인지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듣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중장기창작지원할 때도 다 교육하고 일일이 신경을 쓰고요. 이번에 지원기관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장에서는 흠

족하지 않겠지만요. 그런데 흡족하지 않은 부분은 법률 규정 사항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저는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규정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제들을 앞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중재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추가를 할 수가 있다면 9조 2항에 보면 저희가 조사를 요청했는데 불응해서 잘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에게 신고해서 이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위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게 의미가 깊고 우리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첩되는 과정에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위가 케어한다는 식의 내용이 차후 들어가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남요원 감사 : 저는 홍태림 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덧붙일게요. 우리 보조사업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 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홍태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30일을 둥니까? 그리고 여기 2항에 보면 예술인보호관이 문체부에 있잖아요. 우리가 9월 25일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문체부의 예술인보호관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방어적인 것처럼 오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잘 섞어보시면,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이 인식 또는 제기된 순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보호관과 함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게 훨씬 더 명료하죠.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박경주 위원 : 지금 감사님이 주신 말씀에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저도 30일이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회신을 드렸는데 저희가 2년 임기동안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논의가 되었던 것이 2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정된 것을 의결할 때 이의제기가 되었을 때 언제까지 보류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길었고요. 그리고 교부금이 이미 나갔는데 늦게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교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 정말 불필요한 시간낭비도 많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규정을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예술위에서 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돼지 않아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부금을 집행정지를 시키고, 그러면 예술인보호관에게 신고해서 조사가 나오고 시정조치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몇 개월씩 걸리지 않나요? 보통 저희 예산이 들어오면 그해에 소진되어야 하잖아요? 그 전에 유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잘 보이지 않아서 불분명합니다. 저희는 계속 비슷한 논의를 여기에서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취소가 되면 그분 때문에 떨어진 사람을 올려줄 수가 있나요?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

에 어쨌든 조치가 돼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거나 환수 조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환수했으니까 됐지”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어요.

박종관 위원장 : 언제 서면질의를 하신 건가요?

박경주 위원 : 서면으로 주셨을 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셨군요.

박경주 위원 : 예. 그런데 답변은 못 받았습시다.

박종관 위원장 : 지원총괄부장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건가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마찬가지로 어제 규정심의회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어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시해 주셨던 의견은 “일단 신고접수가 된 시점이면 인지가 된 것이니까 즉시 집행정지 또는 선정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라는 문구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규정심의회에서 검토했는데 신고접수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집행정지하거나 선정을 신고만으로 보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고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수된 사실만으로 지원사업의 집행정지나 선정을 보류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검토 후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정리하자면, 앞서 이진희 위원님 발언은 정리를 했고요. 정정숙 위원님이 요청확인 신고에 따른 예술위의 분명한 역할 강화와 관련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은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강화 문제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위원회로부터 받고 재차 규정심의회위원회의 대응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간담회 때 추가 보고를 하는 수준으로 논의 수순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안을 받아주시면 어떠실까요?

이진희 위원 : 사실 말도 안 되는 규정이지만 사무처에서 숙고하고 애를 써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논의를 모두 재론할 생각은 없고요. 매우 유감인 것은, 아니 유감을 넘어서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술위가 선택한 로펌이 아니라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개의 로펌 중에서 2개가 가해자를 옹호하고 변호한 경험이 있는 로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정상 문제를 제기하고요. 2년 동안 온갖 전문가, 변호사를 꾸려서 어떤 제도들이 매우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지? 다 차려진 밥상을 다시 엮은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성명서를 써야 될 입장이 된 것 같아서 매우 참담한 기분인데요. 개인적 참담함이 아니고요. 현장의 예술인들이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위법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적법한 근거와 30년 이상 반성폭력운동에서 누적된 근거와 사례 그리고 판례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문만

가지고 법적 적합성, 위법성, 합법성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판례를 제시하고 해석. 법률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근거와 사례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다 무너트리고 이렇게 상상하게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위원회와 사무처의 갈등대립인 것처럼 이렇게 전선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회 회의 때 별로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문제와 결과에 대한 문제를 너무 여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틀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구조에 대한 문제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당황스러울 텐데요. 수많은 자료와 근거들을 성소위와 TF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위원 자격으로 제출했는데요. 조문에 수정제안을 한 것이 거의 다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조사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요한 내용인 심의절차나 피해자보호, 가해자 처리에 대한 과정들이 아주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위원회가 왔다는 것도 성과라면 성과고 현장이 이끈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따로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언젠가부터 이 논의가 사무처와 위원들 중에서 성폭력 가치를 강조하는, 저도 지난 회의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처나 직원들의 성인지를 평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한국사회나 문화예술계 안에서 미투 운동이후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이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많은 주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합의과정을 통해서 서로 양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기대를 했는데요.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는 또 개정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한 논의 흐름에 대해서 평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을 했습니다만, 해당 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작업과 서포터를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비상임위원이 개인을 떠나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이 정도의 조례 제정이 될 것이었다면 이것을 왜 1년 넘게 끌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탓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구성원으로서 이것을 제정했을 때, 소위 밖에서 말하는 예술위 7기 위원회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폭력 관련해서 그런 결정들을 몇 가지 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일관성이 떨어져서 규정 얘기까지 나왔던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면피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 노력들이 안에서부터 힘이 생기고, 저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인권단체도 아니고 여성단체도 아니며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규정도 늘 변해가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지향점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인, 정치적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관료적인 선택을 하게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가 그동안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쉽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 평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로펌 같은 것은 기계적 합리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술과 관련된 법 개정을 하는데 노동부나 다른 부처가 평소에 반예술적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법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지가 없다고 보겠죠. 그 사람은 법률적 자격은 있죠. 하지만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은 지향점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게 편들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지만 로펌 얘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다보면 발언이 세지는 것은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취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계속 개정이 될 것입니다. 개정이 될 것인데요. 위원회가 뒤쫓아 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서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예술계의 미투 문제나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요약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결론으로 하고 간담회 때 추가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제안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사무처는 순전히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의견이 있으면 감사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회 전체에서 의결하시고 의결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집행하시면서 사무처를 운영하시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는 보좌를 하면서 위원회가 빨리 선두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 어쨌든 4군데에 했다고 해도 사무처가 잘못 보좌를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에 대해서 사무처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위원회 전체에서 의결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낄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감정은 없어요. 다만, 되는 범위 내에서 예술위 사무처도 앞서 나가고 보호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사무처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부장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위원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자료들과 사례들, 근거법령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사무처에서는 제시해 주신 모든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아까 소위원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위원회 전체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역간담회를 포함해서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핵심적

인 내용으로는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규정에 관한 상징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별개로 사무처에서는 실제로 규정 제정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예술인들에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말씀드렸지만 문체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원기관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가 포함되는 안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법이 시행되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희 위원 : 정리하면 이게 왜 적법한 과정이고 필요한 과정이며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겨우 뒤쫓아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지에 대한 근거와 사례, 법적 검토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제가 성인지감수성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서로 되게 다른 스탠스에서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스탠스에서 있는 건 관점과 위치의 문제입니다. 예술위가 조금 더 현장과 함께 성평등을 기조로 가려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서 심각한 내부 성찰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보조사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예술위일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예술위에 1차적으로 두드립니다. 국민신문고나 여러 형태로 두드리잖아요. 두드릴 때 예술위가 사실관계 확인조차 못하면 담당실무자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실무자 보호를 위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민원은 계속 받고 근거가 없어서 행정소송을 당할 위험이 더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서로 스탠스가 너무 다르다. 이것을 좁혀 가는 것이 마치 사무처와 위원 간 대립처럼 보여 지는 게 장기적으로 예술위한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입을 닫고 논의를 중단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예술위가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예술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과 이 규정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평가는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현장도 같이 나서서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돌려보면서 보완을 하세요. 돌려봐야 아실 겁니다. 그때 위원들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는 돌려보시면 아실 거고 그런 규정의 왜 필요한지는 돌려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논의를 종결해 주세요. 그리고 간담회 때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규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과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규정 중에서 중요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만들거든요. 위원회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장을 어떻게 가고 출장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규정과 함께 하위 규정들. 저희 규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본부장이나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이것도 논의가 부족하다면 추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저도 그냥 침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규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을 때 외부위원이 들어와서 전문위원이 1~2명 포함이 되어서 논의가 되는

결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규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봤고 마치 사무처와 성평등 소위원회 간의 대립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중간 완충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규정 개정을 하면서 그 안에 외부전문가를 넣자는 게 7기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8기에서도 규정을 개정할 때 저희 위원들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훨씬 더 프로페셔널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되게 노력은 했는데 반영되지 않는 느낌을 받으면 뱅뱅 맴돌면서 같은 논의를 하게 되니까 소모적이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규정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결정 내렸던 것들이 8기 위원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이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전 상태로 돌아간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진희 위원님이 1년 반 넘게 애를 쓰셨던 것. 이진희 위원뿐만 아니라 이진희 위원님이 갖고 계신 전문적인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도 정말 애를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었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규정심의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가 1~2명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 사무처와 위원이 대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이후에는 국회지정사업 보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사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는 국회지정사업 추진계획 보고 3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제무용콩쿠르 보고를 받도록 할 텐데요. 회의가 당초 3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사업담당자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회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래 기다리신 담당자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국제무용콩쿠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참석을 해 주셨죠? 제 얘기가 잘 들리시나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잘 들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우선 김주연 팀장님과 강영순 행정총괄담당자님 그리고 김세아 행정팀 사원께서 나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국제무용콩쿠르는 먼저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먼저 하시고 부족하거나 보탬 말씀이 있으시면 담당자들께서 추가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2022년 국회지정사업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업에 내용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도도 국회지정사업으로 배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7억 2,360만 원인데 그 가운데 6억이 문예기금으로 배정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4월 18일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은 국제문화 교류회의 김주연 팀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53쪽에 사무처의 검토의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금사업의 적합성, 기금 집행의 적정성, 성과관리 환류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안을 갖고 사무처 안에서는 적합의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이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추가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교부 이전에 저희가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정 정도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진행되었고요. 해당 내용들은 55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주연 팀장님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맞습니다.

홍승욱 예술지원부장 : 그러면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안녕하세요?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의 진행팀장을 맡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저희가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2004년 1회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19회째를 맞고 있는 무용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국제경연대회입니다. 본 행사는 경연뿐만 아니라 공연과 교육을 종합한 국제행사로 국내 유망주들의 해외 무용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무용인들의 자기계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022년 제 19회 국제무용콩쿠르는 4월 20일부터 예선 원서접수를 시작했고요. 예선은 6월 2일이고 세미파이널은 7월 7일 시작해서 15일 폐막식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민족춤 페스티벌 월드갈라를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해외 참가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의 참가자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2021년도부터 해외 참가자들의 영상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 수가 점차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참가하는 참가자들을 공정하게 심사할 심사위원단의 수는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심사위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해외 참가자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에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점차 해외의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의 비중을 늘려서 더욱 공정하고 폭넓은 견해로 이 경연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국제무용콩쿠르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공연예술계에 대한 발전기여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올해부터 준비해서 2023년도까지 진행될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2023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올해부터 진

행되는 아카이브 작업은 기록이 중요한 무용예술계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무용 전공생이나 무용예술인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작업으로는 역대 참가자들의 동영상과 공연동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프로그램북, 사진 등의 도서출판 모음 그리고 오래된 동영상 자료의 데이터 변환, 키워드를 엑셀 문서화해서 검색이 쉽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사업은 역대 수상자의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단순히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경영대회로 시상만하고 1회성으로 끝내는 공연이 아니고 참가했던 학생들이나 수상자들에게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자는 해외 우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상자나 무용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또한 표준계약서 작성과 예술인고용보험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체부 표준계약서에 맞게 개정해서 번역작업과 법률자문을 동원해서 해외 예술인과 예술단체에도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매년 꾸준히 필요성에 대해서 예술가들과 단체들을 상대로 여러 번 상기시키고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이미 행사 초기부터 행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자 에코백을 꾸준히 제작해서 배포하고 판매해 왔는데요. 올해는 다회용 컵을 제작해서 참가자나 심사위원, 진행요원들에게 모두 배포해서 1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 대해서 전년도 모니터링 평가에서 짚어주신 사전홍보 부족과 일반일 관람객 확보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사전홍보라는 오프라인 작업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잡지, 신문, 관련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모니터링평가단에게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 홍보 방법을 조금 더 늘리고자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의 소통창구를 조금 더 마련하고자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주 업로드 게시물을 늘리고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홍보활동 효과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자체 홍보 동영상 외에 광고용 유튜브 40초 광고를 만들어서 타겟 광고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쪽에서 유튜브는 지난 영상을 업로드하고 지정자 영상 게재로만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특정 대상을 타겟팅하고 단순 노출효과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광고채널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등록한 후 오늘 오전에 확인했을 때 그 노출수가 거의 1,000건에 이르고 동영상 시청빈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홍보영상은 첨부해 놓은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반관객 확보 부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경영대회라는 행사의 특성상 사실 관련 전공생과 가족, 동종업계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 행사에 참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이 행사가 단지 무용계의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영대회가 끝난 후 민족춤 페스티벌과 월드갈라 공연을 진행하며 일반 관객을 유치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영대회의 수상자나 역대 수상자 또 국내에서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여러 단체들의 공연이나 해외의 유명한 무용인과 단체를 초청하여 질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역주민 할인방안도 모색하고 있었습

니다. 다른 장르의 공연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관객의 참여가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프로그램과 할인 방안을 적용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반관객들의 참여 호응도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죠.

장인주 위원 : 예, 무용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인주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세 분 중에 아무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경연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애를 쓰시고 그동안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 면제 특전이 주어지고 있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장인주 위원 :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군 면제와 관련된 특전은 발레 분야에 2명과 현대컨텐츠포러리 댄스 분야에 1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 :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주어지고 있나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군 면제에 대한 특전은 저희가 마지막 파이널 경연이 끝나고 나면 각 부문의 1등을 뽑게 되는데요. 1등이 해당됩니다. 발레 분야는 1등과 2등이 해당되고 컨텐츠포러리 현대무용 부문은 1등이 해당됩니다.

장인주 위원 : 과거에는 현대무용 분야가 1명이 아니었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2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 : 어떤 이유로 1명으로 됐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군 면제를 하는 시스템이 다른 경연대회나 국내 대회에서 보기에는 독점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보면 초창기 때는 이와 같은 행사가 적었고 그 의도가 훌륭했기 때문에 예술계의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이나 특별하게 이 행사를

통해 위상이 크게 올라가거나 해외에 진출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권익신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꾸준히 행사가 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군 면제 등 큰 혜택을 가지고 있는 행사만큼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한국 예술을 견지하는 최후의 버팀목으로 작동한 중요한 종자돈입니다. 때로는 몇 백 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획자들이 밤을 새 정도로 열심히 기획서를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큰 지원금을 받은 만큼 성과도 그렇게 크게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행사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답변을 하시고 설명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매우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위원을 대표하여 드립니다. 본 행사가 7월이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저도 홈페이지에 잠시 들어가 봤는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분주한 시기일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행사로, 좋은 예술적 성과를 축적하는 것 말고 남아 있는 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애를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나머지 분들도 못한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강영순 총괄님과 김세아 행정팀 사원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순 서울국제무용콩쿠르 행정총괄담당 : 저희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연이어서 창작오페라 허황후에 대한 보고를 받을까요? 서종호 팀장님과 조주희 과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접속이 되는대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오페라 허황후 담당자 온라인 접속 중)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국회지정사업 두 번째 보고안건인 창작오페라 허황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부장이 먼저 사업에 대한 개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2022년 국회지정사업 창작오페라 허황후도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국회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이고요. 사업주관기관은 (재)김해문화재단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그 가운데 저희 문예기금은 3억으로 국회를 통해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동 사업들이 진행되었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저희가 4월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가와 동일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수정요청을 한 이후에 그 내용들을 받아서 현재 사업의 적합성 유무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합의견 결과도 59쪽에 별첨하여서 해당 내용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종호 팀장께서 2022년도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종호 허황후 팀장 :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허황후 진행과 관련하여 예술인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과 작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페라 허황후는 2019년도에 저희에게 주관 위탁을 한 김해시에서 가야사 복원과 관련하여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2020년부터 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국비 5억 그리고 시비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먼저 제작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본과 작곡가를 공모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연자 오디션 및 캐스팅을 통해서 선발을 하였고요. 당시 코로나가 심각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품의 초연을 2021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김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초연의 문제점들을 제작팀과 협의 하에 일부 제작팀과 출연진 그리고 대본, 작곡에 대한 편곡까지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해서 작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 17회 대구오페라축제에 초청참가를 하였고요. 2021년 10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서울오페라페스티벌에 초청참가를 해서 국내 타 지역에 있는 오페라 관객들에게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은 총 4막으로 구성되었고요. 저희가 디벨롭을 진행하면서 약 130분 정도로, 초연 때는 150분 정도 소요된 것을 130분 정도로 줄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연 내용은 수로왕과 허황후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풍부한 철 그리고 수준 높은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던 가야 그리고 독립적 정치체제와 민주적인 통치를 바탕으로 철기문화 국가를 완성했던 가야의 수로왕과 허황후의 사랑을 문화콘텐츠화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진행하면서 고유의 정서를 담은 역사창작오페라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만든 오페라를 통해서 인도나 환태평양 쪽에 타 국가와도 교류를 진행해 보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황후의 고향인 인도와의 문화나 경제적 국가교류활성화도 주최 측인 김해시와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진행되는데 그때 김해를 대표하는 예술콘텐츠로 김해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국비 3억과 도비 3,000만 원 그리고 시비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지역대표성을 인지해서 하반기에는 지방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저희가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저희가 제 13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 지자체에서 제작한 오페라로는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서 5월 14일과 15일에 총 2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9월 24일에는 디벨롭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오페라 허황후를 김해에서 1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3회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주최는 김해시이고 주관은 김해문화재단이 맡고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반영사항으로는 음악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내부의견 그리고 외부의 의견들이 있어서 작곡가와 지휘자 간에 상호협의를 통해서 편곡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연 그리고 작년에 대구와 서울오페라페스티벌에서 연주를 했던 것과 다른 쪽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작팀과 참여인원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사업추진 시 약 150명의 참여인력이 있는 오페라다보니 작품성 강화를 위해서 일부 인원들을 변경해서 작품성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미 1월부터 3월까지 작년 사업에 대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고요. 주요 참여인력 위촉을 내부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교부신청과 관련해서 준비를 했고 연습이 실질적으로 파트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14일과 15일 공연을 진행하고 9월에 김해 공연 그리고 11월까지 정산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문화재단이 프로덕션을 맡아서 외부 위탁이라든지 다른 쪽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연기획팀에서 제작PT부터 기획, 홍보 등도 총괄을 맡고 있고요. 특히 예술인들과 직접적인 계약이라든지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정 업무들을 재단이 직접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예술감독, 연출, 작곡, 지휘자, 출연진 등은 전문적인 오페라 그리고 예술인들에게 일임해서 기획팀과 제작팀으로 구분해서 작품 완성도를 높이는 구조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총 4억이고 참여인력과 관련된 예산이 총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대의 임차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총 4억의 예산으로 3회 공연을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히 제작주관사인 김해문화재단에서도 상당히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업이 작품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술인들에게 충분한 존중과 작품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허투루 쓰는 부분이 없이 작품에 더 집중해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오페라를 진행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무처는 적합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피드백을 받으셨겠지만 전문가 모니터링 같은 경우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음악이나 대본에 있어서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문화 소재를 넘어서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해 안에서 공연할 때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오페라축제는 노출이 많은 곳입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연이구요. 이미 최고의 축제인 대구오페라축제에서 하셨으니까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피드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술적 완성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작곡가이기 때문에 작곡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대본가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과 기간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호 허황후 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죠. 오페라 허황후는 음악가이신 정종열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공연예술을 포함한 예술창작본부장과 위원장인 저도 오페라를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과 15일로 예정되어 있죠?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게 기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면 뼈아픈 지적들이 많습니다. 극적 전개가 부족하거나 전반적으로 아리아가 다소 약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재정구조와 관련해서는 공공재원으로 예산의 100%를 충당하는 구조는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서사가 약하다는 지적 등 전방위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이어서 오페라 창작의 어려움. 우리나라라는 환경 속에서 창작오페라를 만드는 어려움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해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근본적인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받는 것은 올해 크게 극복하셔서 예술적 성과를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호 허황후 팀장 :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단점들을 크게 보완하고 창작오페라라고 하는 큰 영역 내에서 큰 성과를 내는 그런 창작 작품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만, 작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예술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버팀목이 되었고요. 때로는 몇 백 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획자, 예술단체, 예술가는 수없이 많은 공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큰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반드시 큰 성과를 내야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예진흥기금이 제대로

쓰여 지고 올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훌륭한 작품이 창작되도록 과정과 결과에 정당성을 모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많이 늦어져서 많이 기다리시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호 허황후 팀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같이 회의에 참여하신 조주희 과장은 어디에 계신가요? 조주희 과장도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호 허황후 팀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어반브레이크 보고를 위해서 회선을 정리할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어반브레이크 아트 아시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반브레이크 추진위원회 장원철 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시죠?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추진위원장 : 예, 안녕하세요? 장원철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어느분이 보고를 해 주시나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국제교류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의 개괄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국제교류부 소관인 어반브레이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기금 지원예산은 총 1억이고 지난 3월 말부터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회 측과 논의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어반브레이크 행사는 올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예산의 경우 집행 증빙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대관료, 작품운송료, 설

치비, 회계검사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기존 문예기금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스트리트 아트나 어반아트 등을 선보이는 아트페어이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과 신진작가 오픈콜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성을 판단했구요. 말씀드렸듯이 지원금 예산 용처를 분명히 하고 자부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전문가평가단의 의견이 “미술 현장과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 “2030 타깃을 유지한다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국제교류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실질적인 홍보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신진작가 오픈콜을 통해서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전문 홍보 대행사 선정 등을 통해서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이어서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사업계획이 승인된다면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작년처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철 대표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 : 안녕하세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입니다. 이번 7월부터 개최되는 어반브레이크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3번째를 맞게 되고요. 작년에 문예위의 위원님들께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금 더 좋고 진일보한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어반브레이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체 공간 중에서 40%가 갤러리 존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100개 정도의 갤러리와 브랜드가 저희한테 신청하셨습니다. 작년 심사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어반브레이크의 특징과 맞지 않는 작품들과 갤러리가 있었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꼼꼼한 심사를 통해서 45개의 갤러리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갤러리에게도 판매하기 위한 전시 수준을 벗어나서 만들어진 공간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안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챙기고 있고요. 아마 이번 어반브레이크의 갤러리 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콜렉터들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50여 개의 부스는 작가들과 특별전으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작가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8월 이후에 오픈콜을 3개월에 걸쳐서 꼼꼼하게 심사해서 작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1,000여 명의 지원자 중에서 20명의 작가들을 선정하였고 그들의 기획안을 함께 고려하면서 꼼꼼하게 어반브레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어반브레이크에서는 콜라보라는 영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기금 자체가 국제교류지원 기금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했던 국제교류기금은 스트리트아트 분야의 전세계에서 최고의 매체인 스트리트아트 뉴스와 콜라보를 통해서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있고 스트리트아트 분야의 2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어반브레이크의 특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트리트아트 뉴스 전체를 기획하고 있는 롬 이라는 두바이출신의 기획자와 5명 정도의 스트리트아티스트들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및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어반브레이크가 지향하고 있는 3가지 키워드로는 그린, 디지털, 에퀴티 등 3가지 영역이고요. 특히 에퀴티라는 영역은 작년 같은 경우 ESG프로젝트라고 해서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와 합

계 아티스트가 참여하고 있는 환경포스터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쪽 디렉터가 스웨덴에 갔고 현지에서 모든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아티스트가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의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네이버 제페토에서 저희가 메타버스 공간을 운영했었는데 네이버 제페토가 갖고 있는 확장성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그 이후에 SK텔레콤의 이프렌드와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전시와 메타버스 콘텐츠 전시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반브레이크에서는 행사가 시작되는 7월 21일 일주일 전에 어반브레이크의 메타버스 공간이 오픈 될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 어반브레이크의 전시모델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MWC2022라는 모바일월드콩글레스에서 롤모델로 전시되기도 했었고 상당한 이슈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어반브레이크 메타버스 버전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디지털아트세상에 대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메타버스 전시기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사전의견을 내 주신 홍태림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요약해 해서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미술품 유통이라는 사업의 성격과 이하 관련성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거쳐 지원금 확보의 필요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다시 지정사업 형태로 문예진흥기금을 받기로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질의였으니까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정사업으로 내려온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 :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경에서 진행했던 공모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경 공모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아까 발표를 하시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1,000개의 작품이었는데? 1,000명의 예술인이었는지가 조금 불분명했는데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 : 1,000명의 예술인이었습니다. 1,000명의 작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중에서 20명만 선정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선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심사절차는 어떤지? 그리고 선정률이 그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응모를 했던 분들의 불만은 없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반브레이크의 특징은 작가들에게 부스비를 받지 않습니다. 작가들에게 일체 요구하지 않고 작가들에게 전시와 관련된 전시지원금을 주면서 어반브레이크를 진행하는 게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켜가야 할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작가들을 초청하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반브레이크가 지향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매너를 최대한 유지해서 갈 수 있는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20명이 아니라 20개 부스를 선정한 것입니다. 어떤 부스는 그룹으로 들어와 있는 작가들도 있고 솔로로 들어와 있는 작가 부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으로 따지면 44명의 아티스트가 이번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20개 부스가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죄송한데 심사절차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 : 심사절차는 저희가 서류심사를 1차적으로 했고요. 서류심사를 통과한 150명의 작가들을 줌 미팅과 대면 미팅을 통한 인터뷰를 한 달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 심사를 거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5인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홍태림 위원 : 홍태림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예술시장 사업이기보다는 세계적인 시각예술 네트워크 플랫폼의 성격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국제교류부에서도 아트페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술품 유통 사업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면 미술품 유통지원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다시 국회지정사업의 형태로 문진금 1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현장평가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습시다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으로 남깁니다. 다음으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무처의 검토의견은 모두 적합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봤을 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아이디어 메모 수준으로 나열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이 세부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주시고요.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승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전시장을 가보고 평가서에도 썼던 것 같은데요. 공공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공적인 전시회인데 장애인분들의 접근성 관련해서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진입장벽 없이 이런 행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을 사업계획서 안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완을 해 주십시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부분은 올해 대폭 보완을 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이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예술계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몇 백 만원의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 기획자가 어려운 기획서를 써야 하고 심의를 거쳐 심의에 선정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집행되는데 반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가 목적하는 바대로 충분히 완성되어서 예술적 성과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당부드립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회의가 늦어져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그렇게 되는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 : 간단하게 제 의견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반브레이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술상품, 아트굿즈를 만들어서 유통하고자 하는 전시 플랫폼이 전혀 아닙니다. 미술시장의 시각예술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아티스트를 저희들은 발굴하고 그분들이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미술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더 명심하고 더 주의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반브레이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관 위원장 : 그래서 작년에 가까운 근거리에서 있는 지역 예술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기의 목적들이 잘 어우러지고 성과로 나타나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박중관 위원장 :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눠야 하나요?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목전에 있는 거라서 지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절차니까 거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보고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건의 사업내용 보고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오늘 보고사항이 14건이 있는데요. 일단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및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향후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공연예술부로부터 보고를 먼저 받고요. 국토교통부 협력사업 테마형 매입임대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전략개발팀으로부터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기획조정정부로부터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을 드릴 것은 해당 담당부장께서는 간략한 보고를 통해서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를 공연예술부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2022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상태로 저희에게 예산이 배정되어 올해 추진될 예산은 10억 500만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의 큰 방향성은 전년도와 큰 차이점은 없으나 이 사업들이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미루어져서 11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작년부터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조금씩 순연적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2023년도에는 정시공모 이후 1월 정도에 바로 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예술인에 대한 정산과 교부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4,000만 원 정도의 용역사업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올해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고 현장으로부터 상당한 만족도를 얻고 있는 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까지는 실연자 제작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다가 작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창작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명확한 언어로 지원신청하실 때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해서 올해 사업들을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로예술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후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추진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해당 사업들을 통해서 원로예술인들에 대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계속해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향후계획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현장의 의견들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서 민간예술단체와 함께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는 공모 절차들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사무처 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서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위원회 의결절차를 통해서 승인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결국 기획재정부가 과목구조 개편을 통해서 승인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과목구조 개편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그때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서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제법 크게 운영되고 있는 장르대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같이 향유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연극이나 무용이면 지협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해당 장르의 모든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안에 연극협회뿐만 아니라 주요 장르별 협·단체들을 만나면서 사업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지 못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저희가 조사해서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개선안을 저희 기관과 협회가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안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 공모에 대한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후 예산의 방향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유란 위원 : 공연예술부에 작년도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원로예술인공연지원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다보니까요. 지금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같이 포함해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2022년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과 현장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유란 위원 : 예.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해당 내용들은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지적하신 대로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역시 작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대규모 탈락과 추후 52개 추가지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수의 축제들 총 지원규모가 하향 조정이 된 이후로 지원규모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로 올해 사업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계획이 완성될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제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관련된 것을 조금 늦게 받아봐서 의견을 못 드렸는데요. 원로예술인공연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원예술이 들어간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심의를 할 때마다 지역에서는 특히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다르다는 심의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전에 어떤 것이 다원예술인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관련해서 저희 다원예술TF에서 5회에 걸쳐서 다원예술 분야에 계신 축제나 기획자,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원예술이 제대로 복원되려면 축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현장과 5월 중에 대화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때 다원예술 분야도 연속지원을 받은 단체와 대화를 나눠서 애로사항을 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공연예술제와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는 임기가 끝나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향후 사업계획을 관철시켜 나갈 때 다원예술에 특화된 전국단위의 축제사업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향후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의견은 다원예술 분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축제와 관련된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들이 다원예술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5월에 현장을 만나신다고 하니까 다원예술 축제 중에서 연속지원을 받은 단체는 간담회를 진행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없으시면 대한민국공연예술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향후 추진계획과 2022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협력사업 테마형 매입임대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전략개발팀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설명에 앞서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현재 국토교통부, 문체부 그리고 저희가 함께 사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협력사업 테마형 매입임대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배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있는 내용 외에 설명을 드리자면, 매입임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4년부터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입임대의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다보니 실제 입주자에게 특화된 설계나 공유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개하고자 2019년도에 신축매입약정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축을 해서 그것을 LH에서 매입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이 부분 조차도 실제 입주자 맞춤형으로 운영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턴 도입되어 진행된 부분이 뭐냐 하면, 아예 설계 단계부터 테마형으로 설정하고 그 테마에 맞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준공 후에 LH가 해당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운영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시공사가 운영위탁을 받아서 7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업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사회적 경제주체),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 대부분이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매입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실제로 예술가나 예술단체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주체가 아니라 기존에 임대업을 하던 경제주체들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테마를 정합니다. 운영테마를 정하고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 플러스 업무공간을 같이 공공매입 방식으로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되고 나면 건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LH가 매입하고 매입 이후에 다시 민간사업자가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보통 기간은 7년 정도 보장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LH가 해당 시세에서 30% 정도를 가져가고요. 매입임대업자는 20% 정도를 임대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왜 100%가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공하는 대상자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주변시세 임대료보다 50% 싸게 책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나머지 30%와 20%를 임대료로 받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이 뭐냐 하면, 예전에 있던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비주택..... 보통 보시면 공실이 많은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테마를 정해서 진행하는데요. 예시를 들면 가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영등포에 있는 아츠스테이라든지 올해 입주를 시작한 경남 김해의 케어안심주택 그리고 안암생활, 도란도란 공동육아방이라고 하는 육아관련 시설, 아이토피아라고 하는 귀농, 귀촌 시설, 다다름하우스라고 하는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 시설 등이 있습니다. 예시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약간 테마 위주로 모든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서 시공단계부터 테마 특성에 맞는 입주시설을 구성해서 공사가 준공되면 그 이후에 입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운영 테마를 미리 선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기존에 있는 절차를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민간사업자를 먼저 공고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매입약정을 체결합니다.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공고를 하면 준공하고 준공검사에 들어가는데요. 이 기간이 보통 준공시작을 한 다음에 1년 정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주변 토지시세나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민간사업자도 발생한다고 LH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

공이 끝나게 되면 입주자를 모집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추진절차는 일반적인 추진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테마에 대한 추천을 받습니다. 협의한 사항은 이 테마를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테마를 적용한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성화된 입주자들에 대해 어떤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설명으로 들어가서 주요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에 국토부 테마형 매입임대 사업을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요청을 받았고요. 조사를 한 것이 국토부와 행안부, 지자체 주관 공간조성사업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장 방문을 위해서 전남 목포나 서울에서 테마형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관련된 주거공간 시설을 제공하는 쪽을 많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국토부, 문체부, LH, 예술위 합동 회의를 3월 14일에 영등포 아츠스테이에서 민간사업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문체부, 국토부 사무관님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특화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홍태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에 추가 요구사항으로 입주자 관련된, 그러니까 예술가들 대상으로 어떤 지원사항 등 추가 검토 요청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협력 내용 등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후속 계획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5월과 6월에는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풀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이하게 임대업을 하던 민간사업자를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실제로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고가 나가더라도 그 공고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많이 없다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모 관련한 부분은 LH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후속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공고가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선정에만 3~4개월이 소요되고 실제 준공협의 그리고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에 들어가면 내년도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중순 이후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 입주가 가능한 시기는 최대한 빨라야 2024년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논의배경과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까지 담겨 있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 협력사업이고요. 지원패러다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얻고 사업의 아이টে를 강화하며 살찌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광범위한 의견을 주시면 더욱더 사업이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견을 위원님들께 여쭙었고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팀장은 사전의견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시고 답변을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예, 홍태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현장대상 의견수렴이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보셨는데요. 실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

수요조사로 5,700명 정도가 참여한 수요조사에서 실제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생활복지, 금융과 주거지원 쪽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판단하기로 이것이 주거복지 차원으로 가게 되면 저희 예술위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술위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 주거지원은 부수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요. 그 공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 그리고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상생 사업들 그리고 ESR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프로그램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입주자들 관련된 네트워킹 구성 등도 필수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부분 중에서 특이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문화예술 분야 특화 4가지 테마에 따른 조성지역이 왜 예술대학 및 청년예술가 밀집 지역 도심이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여쭙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해서 변경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초 저희가 사업을 설계할 때 국토부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LH에서도 의견으로 주신 게 뭐냐 하면, 실제 입주자들이 없어서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주가 즉시 가능한 공간. 그리고 최대한 도심이라면 교통 편의를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실제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 선정 시 심의기준에도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심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설계를 했을 때 기술과 융합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주제의 테마면 실제 기술융합과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기술융합과 관련된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는 아시겠지만 청년예술가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많이 계시는 대학가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부분들은 해당 테마에 맞게 민간사업자들이 부지나 여러 가지 교통편 그리고 입주시설 등의 편의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사업에 대한 협력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죄송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죠.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질의서 내용이 뒷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질의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마 담당팀장에게 질의가 넘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를 하시겠어요?

박경주 위원 : 저는 일찍 드렸는데요.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 오해가 없으셔야 하는데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담당팀장에게 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물어도 될 것 같은데요.

박경주 위원 : 일단 말씀을 드리고 빠진 게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대를 나누거나 분야를 나누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지원사업도 카테고리가 장르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특화 거주공간으로 예를 들어주신 게 나쁘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분야의 예술가가 같이 거주하는 것이 협업 등이 잘 되고 청년세대와 시니어가 같이 거주해야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예시도 좋기는 한데 테마를 생각하실 때 세대가 섞여 있다거나 장르가 섞여 있는 특화된 테마도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사회사업을 하는 것처럼 장르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호실을 구성하는 경우 적게는 20호실에서 많게는 30~40호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40호실이라는 건 40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로 여러 가지 장르의 구분 없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요구를 받은 게 뭐냐 하면 공간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시설 등 다양한 상가시설 중에서도 복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유희공간이라든지 근린시설 공간을 이용해서 해당 주제에 특화된 부분으로 해당 시설을 조금 더 개편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혼부부와 관련된 임대주택은 많지만, 이번에 말씀드린 도란도란 같은 경우도 육아에 특화해서 그 테마에 맞는 시설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화해서 테마에 맞게 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림 위원 : 추가로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금 후속 계획 일정을 보는데요. 6월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 조금 더 빨리 공유가 되었으면 이 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설문이나 인터뷰, 아니면 위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타이밍은 놓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국토부 쪽에다가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이라도 진행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발굴하고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토부 쪽에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예, 충분히 그 부분은 협의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십시오.

이원재 위원 : 진행을 하시면서 참고하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마형 접근은 조금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동안 LH나 SH를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공급자는 이것을 테마라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인데요. 입주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 테마를 잡아서 넣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주자인데 자꾸 뭐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았고요.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과한 요구보다는, 이것은 사실 소셜믹스처럼 여러 주체를 넣을 수 있고 특정 주체를 넣을 수 있는데 로컬의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따라서 거주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마치 문화예술이 LH매입형 사업에 테마처럼 되어 버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LH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가장, 그것도 성공사례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좋은 취지로 진행했던 게 성북 창조빌입니다. 그것도 취지는 좋았지만 집이 잘 나온 것은 아닌데요. 업자들이 공사를 할 때 표준형 모델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 베이스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업자의 이윤을 전제로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의 주거문제는 서울시가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주거 자체의 공급이 필요하지 주거공급 안에 예술테마를 적용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경계를 타서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테마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술인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는 예술위니까 사전 스터디를 하시고 배우의 집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LH와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LH논의가 변창흠 사장이 SH에 있을 때부터 논의했던 것을 가지고 가서 설계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주거조건에 맞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지금 보니까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테마가 됐건 테마가 아니더라도 예술가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가 어떤지가 잘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 작업을 하는 분이나 융복합 작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작업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주거공간도 필요한데요. 주거공간 중심으로 만든다든지 몇 명을 채워야 되는 부담감을 갖게 되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무용지물이고 따로 작업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처의 조사가 긴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맡겼을 때 사업자들은 이윤추구가 중심이기 때

문에 이것보다는 사회적 기업으로 예술 쪽에 모터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면 현장과의 소통이나 예술가들과의 소통 부분에서 긴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짧은 순간이지만 지적한 내용들을 소략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장르구분을 넘어서서 예술가 친화형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생애를 넘어서서 종합적으로 예술가 친화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테마형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패 우려도 있고요. 취지를 살리는 디자인의 강화 요청도 있고요. 결국 이것은 공공성 강화를 요청하고 있었고요. 공급이라는 부분의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도 있었고요. 또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지양하라. 공공성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런 지적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더 듣겠습니다만, 이것을 종합해서 간담회 때 추가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사업들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제안을 합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지금 있는 것을 토대로 전략개발팀에서 이 부분을 받아서 5월 간담회 때 추가 보고를 하고 내용을 공고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지금 논의를 했기 때문에 5월은 너무 빠를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금 더 시간을 가질까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저쪽의 일정도 맞춰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도 의견을 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통로를 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할 시간을 추후로 잡도록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영 전략개발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2023년도 문예기금운용계획안 수립 현황 보고를 기획조정부장으로 부터 받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문예기금운용계획안 수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재부로부터 각 부처별 실링이 와서 중기사업계획에 제출된 사업안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술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중이고 재정담당관실을 대상으

로 예산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출구조조정은 원칙입니다. '23년 예산 대비 재량지출 10% 수준 절감하는 것은 거의 해마다 나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사업 연장평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오면 그 부분에 따라서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술창작지원과 예술인력육성, 향유기회 확대, 정책 및 기부활성화 등 4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연장평가를 받았는데요. 받은 내용들 중에서 이번 지침 자체가 대폭 삭감을 하라는 평가단의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국정과제나 정책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사업담당 부서별로 대응을 한 상태고요. 연장평가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의 자부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넘어서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보조금이 나가면 그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이월을 지양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력육성에서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지정교부를 하고 있는데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하는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나는예술여행이나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도 코로나로 일부 감액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문학창작육성에서 문예지 부분과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에서 3%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작년에 아동청소년예술활동지원은 증액이 되고 다원예술창작지원은 증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도 내에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에 예술위 설립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일단 한도 내에 포함한 상황입니다.

주요감액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인데요. 무대예술전문교육이 작년에 일자리 사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실제 지역에 있는 문예회관 등에서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있었고요.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은 과목구조 개편을 하면서 청년예술가지원 사업과 통폐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나가는 사업과 우리 국제교류지원사업이 유사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제예술교류지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나는예술여행과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은 실집행률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 3,655억이고 지금 한도내와 한도외를 합쳐서 5,328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재정담당관실에서 문체부 전체 한도를 가지고 5월에 확정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80쪽을 보시면 예술창작지원입니다.

예술창작지원에 대한 증액은 1순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학창작, 시각예술, 공연예술창작,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과 기술융합, 기초예술다양성증진 등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주요 내용에 보시면 증감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코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의 리모델링으로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

해서 리모델링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담당관실 쪽에서는 볼륨이 꽤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나 새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청년예술가나 경력단절예술가들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브리지를 놓는 부분이나 다년간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5월이나 6월 기재부의 심사를 받을 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쪽을 보시면 예술인력육성 사업입니다. 예술인력 사업에서는 마찬가지로 청년예술가 지원에 대해서 차기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장예술인력육성에 대해서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에 대해서 문예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2쪽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올해 230억에서 240억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코로나19 긴급융자사업은 정상화가 되니까 줄이고 예술인복지재단 쪽에서는 전세지원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사업평가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 역시 공익사업 중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보통의 등급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르코공공예술사업에 대한 증액. 이 부분은 건축물 미술작품 사업이 계속해서 기금으로 들어오고 공공예술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역예산이 줄지 않도록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재교부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원주체들에서는 증액소요를 주셨지만, 문예기금에서는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하지만 기관 내에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신규로 설립50주년 기념사업과 인권위가 권익위 권고에 따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부활성화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우수기관과 후원 우수단체 인증사업과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 후원플랫폼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관련해서는 각 지역문화재단들도 예술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예술기록원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과 공연전시영상화 사업에 대한 강조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겠습니다.

84쪽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요. 이것도 6만 원을 늘린다 5만 원을 늘린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가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의 규모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1만 원으로 되는 것으로 현재 버전에서는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의 심의를 받으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나는예술여행이나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은 소폭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유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예술의 전당에서 기재부2차관과 함께 예술단체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 제가 예술계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몇 가지 제의를 했는

데요. 우선 “일상회복 거리두기 폐지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현장예술계는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성과를 내던 긴급 사업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고요. 그리고 현장은 순식간에 복원되어 코로나 이전으로 갑자기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락처를 위한 배려 차원의 사업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제의로 전국 600개 미만의 민간공연장,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학로에만 130여 개의 민간공연장이 있는데요. 이 공연장이 자꾸 없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운영 때문에 없어지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25개 정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60억 정도의 규모로 확대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의견을 제시받을 때도 질문이 나왔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설명을 하는데도 나왔습니다만, 아르코미술관과 아르코공연장은 지어진지가 40년이 넘었는데도 전면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입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를 내년엔 신청하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공유와 보고 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사전질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 속에는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예술가의 집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이것이 근대문화유산이라서 이른바 그런 시설을 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한 지적도 역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청년예술가가 주도하는 사업들과 청년을 배려하는 사업들에 대해 내년 예산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응도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26일 협의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큰 틀의 예산운영 방향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해 주시면 그 논의에 따른 대응을 최대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혹시 지금 의견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서면이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즉시 공유하면서 예산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고요. 알앤디 예산,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것을 준비할 여력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특정 분야나 사업 논의는 부차적이고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늘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려면 예산 확정 전략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개별적 요구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 절박함을 우리가 모를리는 없는데 그것이 실현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재정 전략 등이 준비되려면 알앤디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 예산이나 문체부와 연계하든 그런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분야의 예산 확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통로를 열고 계속해서 재정과 관련된 의견을 받으면서 저희도 변수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응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 추진계획(안)과 국토부 협력사업 테마형 매입임대사업 추진 경과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수립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남아 있는 보고사항이 정책소위원회 정책제안 포럼 ‘예술의 현재성과 정책 과제들’ 개최 결과보고, 제42차, 제43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11차, 제12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11차, 제12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 제6차, 제7차 다원예술 TF 회의 결과보고, 제12차, 제13차 청년예술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 등입니다. 이 중에서 43차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소통과 관련된 보고와 제6차, 제7차 다원예술 TF 회의 결과보고에 따른 다원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긴급제안과 제12차, 제13차 청년예술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에 따른 저희 소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제안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 받기를 제안드립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고 순차에 의해서 제43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중에 나왔던 현장예술과 관련된 보고를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43차 회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정책제안으로 들어왔던 것은 2022년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지원사업의 삭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현장소통 소위원회에도 제안을 해서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공연예술부에서 이미 답을 달았는데요. 다시 정책제안으로 올라온 건이라 소위원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문화예술계 방역대응에 대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입장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변동에 따라서 발표 시기를 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관련 내용은 5월 4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코로나 TF 주최로 개최되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예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입장문이 아니라 토론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명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 사업으로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가지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관처가 음악협회로 진행되었는데 음악협회 지부가 지나치게 많이 선정되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 다수의 클래식음악단체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음악계 일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

었다는 이야기를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공문을 드렸고요. 향후 계속한다면 이 부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두로 들었을 때는 음악 분야 쪽의 지원경쟁률이 4:1 정도가 되었는데 음악협회 지부가 10% 이상 선정된 것 같고 그쪽에는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보다 낮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음악협회 등에 주관처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줬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후 이 문제를 고민해서 향후 평균 선정률과 맞출 수 있는 지부의 선정 방식을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의 입장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태림 위원님, 혹시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홍태림 위원 :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일단 접수하도록 하고요. 다원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긴급제안은 정준화 부장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박경주 위원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다원예술 TF 회의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보고드릴까요?

박종관 위원장 : 문건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문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박경주 위원님께서 직접 보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어제 정준화 부장님께는 전달을 해 드렸는데 화면을 볼 수 없나요? 제가 위원님들 특방에는 올려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건은 받았습시다. 문건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박경주 위원 :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2023년도 예산에서 한도의 증액을 반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다고 하셔서 다원예술 담당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전에 드렸던 긴급제안에는 833건에 대해서 97%가 탈락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원예술 TF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저한테 표명해 주셨고요. 제가 그냥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긴급제안으로 드린 것은 1번의 하반기 추가 지원사업에서 5억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큰 예산인 것 같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위원님들 특방에 올려드리고 정준화 부장님께도 드렸는데 2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60명 정도의 다원예술가들에게 추가 공모를 통해서 창작준비지원으로 추가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97%가 탈락하는 지원심의결과 발표가 났을 때 저희가 현장의 분위기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지원심의결과 발표가 날 때 추가공모가 있을 거라는 예고가 나가서, 그리고 저희가 다음연도 정기공모는 올해 9월에 정기공모로 나간다는 안내가

나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다원이 됐든 혹은 문학도 추가 소요가 분명히 필요하죠. 작년과 올해 해 보니까 문예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해서 예산이 중간에 필요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우리 문예진흥기금은 아직도 요청한 기금에 비해서 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고 기금을 늘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기금의 크기를 크게 키워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할 것인데요.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도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 범위 안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연도 중반에 기금을 늘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 입장에서 확정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 “올 9월에 추가 기금지원이 있을 것이니.”라고 예고하는 순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때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약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앞단을 끊어서 연도 중반이거나 다원의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에 관한 노력들은 위원님들도 도와셔야 하고 저도 사무처를 지휘해서 최대한 응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의한 대로 시간을 명시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가정하고 예단해서 공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문체부 협의가 끝나고 나면 기재부에 가서 추가 논의를 하고요. 그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한도외로 나간 것에 대해 국회에서 또 예산 작업을 해야 할 텐데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지지하지 않고 다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영역 혹은 우리 문화예술계 전체라고 하는 중요한 영역의 기금 확보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경주 위원 :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만약 기금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한번 더 지원공모를 할 수 있다면 논의 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한 부분은 어제 정준화 부장님께도 드렸고 오늘 특방에도 올렸으니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다음 논의는 12차, 13차 청년예술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에 따른 위원회 소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흥태림 위원으로부터 직접 제의를 드릴까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제승 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이제승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족한 부분은 흥태림 위원의 보충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청년예술 TF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차, 제13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안건은 13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차는 3월 24일에 5인의 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개최가 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미래예술 제언은 저희 TF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문서가 완성이 거의 되어서 129페이지 첨부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넘어가고요. 123페이지 4번의 미래예술캠프 신규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 기반 청년예술가 주도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2023년 기본운용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13차 회의 결과보고입니다.

4월 7일에 6인의 위원님이 참여해서 개최되었고요. 126페이지 2번의 소위원회 구성 및 자격 관련 운영규정 개선(안)은 홍태림 위원님이 추가로 설명하시겠습니다. 아래에는 이런 미래예술 제언을 조금 더 공론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 2째 주에 라운드테이블을 준비 중이고요. 그 경과를 모두 담은 백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세대 및 성별 균형을 갖춘 예술위 선행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하단에 참여예산제도 별도 확보한 예산은 저희가 14차와 15차에서 계속 논의해서 5월 위원회 회의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태림 위원님께서 추가 발언을 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예, 부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소위원회 신규조문대비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보내드리고 자리에서도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주요 내용만 논의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 오늘 논의를 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공유만 드리면, 지금 청년과 여성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국회 쪽과 협의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동해서 위원회 안에서 소위원회 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TF 주요 과제 중에 하나라서 이것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6조 1항에 소위원회 자격 관련해서 여러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5년 이상 종사자라는 부가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소위에서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청년예술인들의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고 실효성도 체감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서 부가조건을 삭제하는 게 어떠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조 2항에 소위원을 위촉할 때 남녀 및 각 연령층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조 2항에 1호와 2호를 추가했습니다. 새로 들어갈 안의 내용인데요. 1호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준해서 특정성별이 각 소위원회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기계적으로 모두 적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성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가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법 2조 2항, 그리고 제 15조의 내용을 고려하고 예술위 청년예술지원 사업이 보통 39세까지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18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해서 최소 3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외적으

로 ‘다만’이라는 내용을 붙여서 현장소위처럼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라든지 청년세대 소위원 후보자가 없거나 청년 소위원 후보자가 있음에도 전문인력 구성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꼭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단 내용입니다. 이런 안으로 정책혁신부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 규정개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라든지 방향성 차원의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주신다면 규정개정심의 과정에서도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발표 중에 질의사항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추가 답변이 필요한 위원이 계신가요?

정정숙 위원 :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3인 이상”이라는 기준은 될까요?

홍대립 위원 : 원래는 1인으로 잡았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성평등 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러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평등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청년위원들이 들어오고 의견을 모아서 내용을 다루려면 2명에서 3명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1인에서 3인으로 했는데요. 3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측면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 외에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 당연한 요청이어서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저도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짧게 말씀을 하십시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저희가 보통 소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인에서 10인 사이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젠더와 연령과 장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지역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청년 3인이 확실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제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 최대치를 그렇게 열어놓고 어느 정도 지키는 정도의 운영의 묘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지금 현재 최소 3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이해를 하는 형편으로 실제 규정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할만한 내용이고 오늘은 갈 방향을 먼저 정하고 논의하시면 어떨까합니다.

박경주 위원 :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청년을 포함한 것이어서요. 저도 정창호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보고 3명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거든요. 어차피 논의 안건이니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는 것에 여성에 대

한 배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청년에 대한 배려도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3명으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 감사합니다. 의견을 받았으니까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서면을 포함하여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모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4월 정기위원회에서는 3개의 의결사항과 14개의 보고사항을 모두 소화하였습니다. 차기 회의일정을 상의하고자 합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시면 제33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폐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회의종료)